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로마서 5:21

벤엘교회로 초대합니다

“거 줌, 들어봅시다. 영원한 생명이란 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요?”

“네.”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뭐가 좋아요?”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삽니다. 또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되고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면서 뭐 이 땅에서도 그 생명으로 산다고 해요?”

“아, 그 말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자로 산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생명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영원한 생명이란 어떤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표시가 있나요?”

“그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한 소망을 갖습니다. 겉은 우리 모습 그대로이지만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면의 안식, 기쁨과 소망을 가진 자의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삽니다.”

“정말이요?”

“그럼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던데요?”

“네?”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던데 하는 행동은 우리보다 못한 게 많아요.”

“어떤 점이에요?”

“우리처럼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어떤 때는 더 약한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속물 같더군요.”

“인간이니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 사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므로 내면에 예수님이 그에게 계셔서 그를 이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아침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되고, 영생을 얻으면 영생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산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정리해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럼요. 우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있다가 예수님이 과거에 있었다거나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아침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인정의 수준이 아니라 신뢰와 의지를 뜻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여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은 단순히 해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잠깐, 뭔도 죄가 나옵니까?”

“네, 성경은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러하고요. 우리가 하루에 죄를 얼마나 지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나도 별로 나쁜 사람이 아닌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지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로서 그분을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궁금하시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의 대속하신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은 한 번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그럴 믿는다고 해요? 엄청, 신뢰하는 거구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원히 간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번에 된 것으로, 다시 그렇게 하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 하고,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겁니다.”

영혼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느끼며 함께 살게 되지요

“좋아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살 때 어떤 유익이 있지요?”

“네, 인간의 몸은 영과 혼(생각과 감정)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육신 생활을 하기에 육신이 영혼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고, 영혼의 상태를 육체가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행복할 거라 여기지만 막상 돈을 많이 가지면 돈이 없어 불편한 건 다소 해소될 수는 있어도, 다른 불행들이 수없이 많다는 걸 더욱 실감하게 되지요. 육신적 즉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고 소망과 기쁨에 차 있으면 육신은 그 영혼에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서 영혼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느끼며 함께 살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은 왜 그래요?”

“그건, 저로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나는 잘 모르고, 그의 내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속적인 삶을 산다면, 예수 믿기를 열망하면서도 세속적인 삶과 사고에 물들어서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괴리된 현상이라고 봐야겠지요. 내면의 갈등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경,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 성경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hood 행동을 하게 하는 권면과 속된 자기 생각이 갈등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성경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지만,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가난하게 본성적인 습관대로 따르는 것으로도 비유할 수 있겠죠.”

참 신앙이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

“오!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네. 그리고 재미있는 예군요.”

“그런가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마치 물건 하나를 가지듯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리스도 안에 서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분에 대한 의식도 달라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고, 오늘 내 삶의 의미가 얼마나 고상한지도 알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답고 훌륭한 생각을 하고 행동에 드러나게 됩니다. 다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영생이란 걸 생각해 봐야겠군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야!”

“그걸 바랍니다. 참 신앙이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여러서는 자가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문득 생각나네요.”

대부흥전도주일

2025.9.7~28 벤엘교회로 초대합니다

벤엘교회는 광야에서 배회하던 아람이 하나님을 만나

‘벤엘’이라 칭한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곳입니다.

당신이 나와 예배를 드리는 순간,

왜 ‘벤엘교회’ 인지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담당목사 **박광익**

*벤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집

박광익 목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기쁨

담대히 전할 하나님의 사랑

강선영 집사 (i-1교구)

저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쁨을 먼저 가정 안에서, 두 청소년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소망 없는 이웃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고 싶습니다.

불혹의 나이를 지나 결혼 19년 차쯤 되니, 이제는 결혼식이나 돌잔치보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자연스레 고통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천국과 안식, 나아가 부활의 소망까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서의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될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돌지어다.” 이 말씀처럼, 죽음은 오히려 지금 살아 있는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무엇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천국과 영생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또한 언젠가 나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은 있었지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반 훈련을 받으며, 머리로는 감사했던 구원과 영성이 삶 속에서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관능 있는 말씀과 가르침, 성경통독과 신앙 서적 읽기, 매일 큐티하기, 기도 훈련과 수요예배 참석, 그리고 함께한 8명의 집사님들과의 깊은 코이노니아를 통해, 저는 구원의 기쁨을 이제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생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기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아침을 믿습니다. 저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쁨을 먼저 가정 안에서, 두 청소년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소망 없는 이웃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종으신 하나님

김희정 집사 (u-1교구)

예전에는 삶과 분리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고 싶은 소망이 제 안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이민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처음 벤엘교회에서 예배드리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2살이던 첫째를 탁아부 집사님께 맡기고,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로 드린 귀한 예배였습니다. 얼마 후, 코로나가 유행하고 둘째를 출산하면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었을 때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예배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제자훈련을 받고 싶다.’라는 소망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제자훈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저에게 광야와도 같았지만, 2년의 훈련 기간 동안 말씀과 다양한 서적들을 통해 이성적인 신앙으로 변화되며 더욱 견고해졌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삶과 분리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고 싶은 소망이 제 안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욕심과 불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식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되새기며,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한 저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가정에서는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로서, 이웃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합니다.

동생을 통한 신앙 훈련

김미현 집사 (i-8교구)

‘주님, 아버지를 구원해 주셨듯이 사랑하는 제 동생도 언젠가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남동생은 저희 귀 귀둥이였습니다. 오빠와 제가 한 살 터울이었고 4살 밑으로 남자 아이가 태어났던 터라 늘 화가 많으셨던 오빠도 동생만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를 풀고 귀여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은 지금 약 20년째 암투병 중입니다. 나이에 비해 의직하고 도전적이고 늘 자신감이 넘치던 아이가 갑자기 대학교 1학년 때 원인 모를 희귀병에 걸려 지금까지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셨던 엄마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하셨고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도 별 차도가 없자 같은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엄마의 손에 이끌려 동생만 낮게 해 주시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이제 어느덧 중년이 되었고 어리게만 보였던 제 동생은 벌써 마흔이 넘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권사님이 되셨고 숨이 턱턱 막히는 뜨거운 여름이 오든 세찬 한파가 부는 겨울이 오든 매일 새벽, 교회에 가서 세 시간 넘도록 동생과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오십니다. 이젠 나이가 드셔서 동생을 간호하기도 힘든 상황인데도 그렇게 사시는 엄마를 보면 가만히 있는 제 자신이 죄스럽기만 합니다. 그런 엄마의 피눈물 나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제 동생은 여전히 믿음이 있고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말이 울고 있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삼촌은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데 왜 낯지 않아요?” “엄마도 잘 모르겠다. 삼촌이 믿지 않아서 그럴까.” 저도 늘 궁금했습니다. ‘동생이 믿으면 낮게 해 주셨을까.....?’

그런데 제 기도가 요즘엔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제 동생을 구원해 주셔서 부디 이 땅에서 영적 평온함을 누리게 해 달라고, 그리고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 아닌 썩지 아니할 하늘의 면류관을 위해 기도하게 해 달라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주님만 아시겠지만 전 오늘도 동생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구원해 주셨듯이 사랑하는 제 동생도 언젠가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후회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의 삶

성예빈 자매 (u-청년1부)

예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됨으로,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후회하는 것을 싫어하는 저는 ‘미래의 나’에게 말을 걸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미래의 나’와 대화를 하면 미래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 떠오릅니다. 어느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실 마지막 ‘그날’에는 내 모습이 어떻게 고난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세상의 끝에 선 ‘미래의 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희를 기억해 주시길만을 간절히 바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저의 시간을 드리길 원하게 되었습니다.

수행형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어느덧 3년 동안 중등부를 섬기며, 그중 2년은 중등부 찬양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깝지 않은 사랑스러운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은 아이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어떤 소원을 말할래?”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신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다른 아이는 세상에 전쟁이 하나도 없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무 좋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알려주세요.” 하며 묻는 아이도, 나와 친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돌보라는 설교를 듣고 우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끝까지 위로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과 무한한 가능성이 넘치는 열다섯의 우주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저의 부족함보다는 마음의 충심을 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희망과 소망을 믿으며 한 걸음씩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쭙보며 확신으로 기뻐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됨으로,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결코 후회하지 않을 저와, 믿음의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일산·운정벤엘교회

